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케 하는

# 현장신앙52주

## 제 1 권

### 1과-52과

목장교재, 개인묵상, 설교, 개인전도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그룹 Study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박희성 목사 제공. 이메일: [heessbakh@gmail.com](mailto:heessbakh@gmail.com)  
Korean Harvest Mission

구.월간광야. 현재사역: 읽어주는 책: [wonderfullifemagazineyoutube](http://wonderfullifemagazineyoutube.com)  
email: [wonderfullifemag@gmail.com](mailto:wonderfullifemag@gmail.com) [www.wonderfullifemagazine.com](http://www.wonderfullifemagazine.com)

# 목 차

- 제 1 과 내 삼촌이 간다 4
- 제 2 과 나를 격려해 주세요 6
- 제 3 과 보이지 않는 금가루 7
- 제 4 과 가면놀이 9
- 제 5 과 깃털을 다시 새에 뽑으라 11
- 제 6 과 토네이도 13
- 제 7 과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 15
- 제 8 과 방주 안에서의 안식 17
- 제 9 과 어머니의 손톱자국 19
- 제 10 과 곰에 쫓기는 두 사람 21
- 제 11 과 세차 11
- 제 12 과 아기와 자동차 뒤창 24
- 제 13 과 시험에 들지 않게 26
- 제 14 과 폭풍에 밀리는 작은 배 28
- 제 15 과 꽃병과 어린아이 30
- 제 16 과 내적인 얼굴 외적인 얼굴 32
- 제 17 과 아내 몰래 집으로 들어간 남편 34
- 제 18 과 빛을 본 여인 36
- 제 19 과 성취와 성공 37
- 제 20 과 올림픽 마라톤 마지막 주자 38
- 제 21 과 아름다운 만남 40
- 제 22 과 아들이 깨어라 좋은 아침이다 42
- 제 23 과 나는 느낄 수 있어요 44
- 제 24 과 뉴기니 원주민 45
- 제 25 과 찰스 스펀전의 회심 47

- 제 26 과 자연과 영적인 눈 49
- 제 27 과 다수를 위한 소수 51
- 제 28 과 네 사람 관계 53
- 제 29 과 작은 시계소리 55
- 제 30 과 나는 유월절 체험을 했다 57
- 제 31 과 우리 조상이 넘어온 파밀 고원 59
- 제 32 과 내 장갑 속에는 누구의 손이 62
- 제 33 과 Q&A 방법은 전도 100% 63
- 제 34 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65
- 제 35 과 낭비한 날과 가장 멋진 날 68
- 제 36 과 C.C.M 문제와 예배 70
- 제 37 과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74
- 제 38 과 누가 저를 당기고 있어요 75
- 제 39 과 레오날드 다빈치의 마지막 말 77
- 제 40 과 크리스천과 정치참여 79
- 제 41 과 맥도날드 스마일 83
- 제 42 과 엘리웃의 흥터 얼굴 85
- 제 43 과 죠지 물러의 기도 87
- 제 44 과 갈림길에서의 선택 89
- 제 45 과 엄마의 한마디 91
- 제 46 과 피아노로 외로운 자들을 93
- 제 47 과 가정은 자녀들이 일등 하는 곳 95
- 제 48 과 전갈을 한 마리씩 바다로 97
- 제 49 과 시기의 찬 독수리 100
- 제 50 과 살구 한 접시 줄까요? 102
- 제 51 과 독수리 등지 104
- 제 52 과 원수를 나의 친구로 106

## 제 1 과 내 삼촌이 간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히 3:1,2).

<예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을 찾아 작은 서부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광장을 가로 질러 멀리 보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 삼촌이 간다!”라고 외치고는 달려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을 어떻게 알아보고 불렀지요?” “아들 아, 걷는 모습이 꼭 아버지와 같아서 알아봤어”

■ 깊이생각하기: 바울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소개했다. 유대민족이 최고로 본받을 사람은 모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혹시 모세를 닮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모습은 닮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신자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그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다. 아버지는 삼촌을 본 적이 없지만 삼촌이 분명히 그 형을 닮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삼촌의 형님을 보지 못한 아들은 삼촌을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리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만지듯이 체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보면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누가 나를 보고 얼굴이 착해 보인다고 혹시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사권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신자인줄 모르고 있는지요? 나는 ‘저 사람이라면 교회를 나가겠다’ 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반대로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거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지요?

■ 기도

## 제 2 과 나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11).

<예화>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 William Arthur Ward

■깊이생각하기: 권면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서로를 세우다 (oikodomeo)’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집, 탑 또는 헛간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된다. 집을 세우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설계하고 예산을 세우고 기술자들을 동원해야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저 할 때는 충분한 기도준비 부터 한 후에 그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와 신자들은 영적인 건물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간에 서로 세워주는 일을 잘해서 온 교우들이 주안에서 든든하게 서 가기를 원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분명히 천국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이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개인주의, 끼리끼리, 권위주의, 인본주의 등이 작용한다.

■서로 나누기: 나는 서로 격려를 하는 사람인가요, 무관심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격려를 통하여 한 영혼을 세워 본적이 있는지요? 누가 나를 격려해준 적이 있는지요. 그때 나의 기분은 어떠했는가요? 내 주변에 격려가 필요 하는 사람들을 한번 세어 보세요.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기도

## 제 3 과 보이지 않는 금가루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 13:44-46).

<예화>

와킨슨 박사는 어느 날 금광 촌을 방문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그가 느낀 점은 먼지와 소음, 험상궂은 노동자들, 급류, 가마솥만 보이고 금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사우스 샘턴에 정박하고 있는 배에 잠시 들어가 보니 금광에서 배출된 금가루를 모은 곳을 발견했다. 그 금값은 수백만 달러가 넘을 것 같았다.

■깊이생각하기: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비유했다. 이 세상에서 이뤄질 하나님의 왕국도 금 과 같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솔로몬 궁전도 금으로 장식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의식주를 위한 재물이 제일 귀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 그 보다 더 귀한 것은 신령한 금으로 지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금광에서 나오는 금가루는 다른 이물질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들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안에도 금가루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금가루들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 자동차 소음, 공사장 소리, 장사꾼 들의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등에 묻혀서 우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짜금은 못보고 가짜 금인 물질만을 찾으려 다닌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돌려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자.

■ 서로 나누기: 나는 나의 삶에서 금과 같은 하나님이 왕국(천국)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나 장소를 본적이 있는가요?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마음이나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요? 나는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았는가요?

■ 기도



## 제 4 과 가면놀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삼상 16:7).

<예화>

스위스 바젤에서는 마을축제로서 가면놀이를 하곤 했다. 많은 어린이들과 일부 어른들이 합하여 사람들을 웃기거나 놀라게 하는 가면들을 쓰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가정을 방문할 때는 순진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들이 그렇게 과감한 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면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그 지역 구세군교회에서는 피켓을 만들어 그들과 마을 주민들을 향하여 교훈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의 피켓에는 “하나님은 가면 뒤를 본다”라고 썼다.

■깊이생각하기: 이 세상에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아니 거의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지 않을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좀 더 과장하거나 부족한 점들은 가리기 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짜 모습이라도 보여 줌으로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실질적인 모습을 평가하시는 분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면 죄를 짓거나 버림을 당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잎사귀로 가면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죄인 된 모습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가면은 곧 시들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구적인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 훨씬 멋있고 튼튼했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다. 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만들어진 이 옷은 예수그리스도 자신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값비싼 옷이다. 이 옷은 가면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런 자기실체를 보여주는 얼굴을 가지고 살

아야 할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나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잎사귀 옷을 입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이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가요? 내가 잎사귀 옷을 입었다가 난처한 입장에 있어 본 적이 있었는가요? 나는 잎사귀 옷 유혹에서 피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요? 예수님이 주신 진짜 옷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요?

■ 기도

## 제 5 과 깃털을 다시 새에 꽂으라

■하나님의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4).

<예화>

한 젊은 여인이 한 노인을 찾아와 고백하기를, “나는 남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 흠입니다.” 그 노인은 그 여인을 위해 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깃털하나를 뽑았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는 새를 사가지고 와서 깃털을 하나씩 뽑으면서 죄를 참회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노인의 말 대로 실천했다. 노인은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그 깃털들을 다시 새에 꽂아 넣으라”고 말했다. 젊은 여인은 말하기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깃털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갔어요. 노인은 말하기를, “말이란 한번 말한 것들은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단 말이야. 치약이 한 번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튜브에 넣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말은 한번 내 입에서 나가면 각각 자기 길로 찾아가는 법이야.”

■깊이생각하기: 오늘의 본문을 의역해 보았다. “마음을 누그러트리는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비꼬인 말은 자기의 영과 상대방의 영을 모두 짓밟아 버린다.” 나쁜 생각은 내 혀를 악하게 움직이지만 좋은 생각은 내 혀를 선하게 움직인다. 혀를 지속적으로 잘못사용하면 모서리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의사는 환자의 혀만 보아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내 혀가 나를 죄수로 삼지 않도록 혀에게 너무 자유를 주지 말아라. 혀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아 본 후에 서서히 움직여라. 내가 안다고 그 아는 것을 다 말하면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된다. 진흙을 절대로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나의 손에 진흙이 먼저 묻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더러워진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가요? 나는 매주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오면서부터 달라진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요? 나는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요? 나는 남의 흉을 보다가 그 장본인으로부터 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그때 나의 기분은 어떠했나요? 나는 남의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 기도

## 제 6 과 토네이도

■하나님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 4:26,27).

<예화>

폭우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폭풍이 오기 시작하고 번개가 칠 때 사람들에게 폭풍이 멈출 때까지 대피하라고 모두에게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주차장에 있는 차로 달려가서 자기차로 들어갔다. 나는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멀리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차 옆에 서 있다가 트럭을 타고 집으로 달렸다. 나는 운전석 옆 창문으로 내다보았는데 약간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잠시 후 픽업트럭 뒤에 실었던 캠핑 의자 중 일부가 날아가기 시작했다. 계속 달리면서 오른쪽을 바라보았더니 울타리를 따라 자라나는 덩굴들이 사정없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바람은 이리 저리 강하게 불었다. 주변 집들의 지붕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내 픽업트럭 뒷 유리가 깨져 바람에 조각이 흩어져 날아갔다. 어느 집 울타리 일부가 바람에 날리면서 내차 후드를 쳤다. 나는 너무나 공포에 질려 운전석에서 얼굴을 숙이고 몸을 피했다. 나는 트럭 뒤쪽이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내 앞에서 전력선이 폭발하는 섬광을 볼 수 있었다. 약 45 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평생처음 보았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손이 떨렸다. 나는 살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우선 나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침수 된 물에 들어가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매우 당황하면서 다른 동료들이 나를 보고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걸프전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지만 이번 토네이도는 그것 보다 더 두려웠다.

■ 깊이생각하기: 분노는 마치 토네이도와 같다. 토네이도가 한 번 스치고 지나간 뒤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집, 자동차, 전봇대, 간판, 나무, 그 외에 집에나 길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중으로 분해되어 날아간다. 토네이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토네이도의 원인은 따듯하고 습한 공기가 건조하고 찬 공기와 만날 때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 주는 텍사스와 캔사스주이다. 이 두 주는 토네이도 골목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토네이도 골목' 같은 사람이 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분이 폭발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 분노는 대개 상대방의 상처와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타난다. 뇌에 이성의 기능이 감정을 통제 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한다. 분노를 자주 일으키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분노는 후회로 이어지면서 여태껏 오랫동안 쌓아올린 신앙도 단번에 무너지고 만다. 분노는 예수님의 의의 분노 이외에는 어떤 경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인가, 화를 절제하는 편인가요?, 나는 왜 화를 절제 없이 누구한테나 특히 집안 식구들에게 쏟아내는가요? 나는 화를 잘못 내어 큰 위험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본 적은 없는지요? 자식들이 있는데서 화를 낸 적이 있는지요? 그때 자식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나는 어떤 때 화를 내는가요? 나는 화를 낸 후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요? 나는 하나님께 화를 자주 내는 것을 절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요? 화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밖에서 누가 화를 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분노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은 변명을 하지 말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면 양약이 된다. 냉수를 두세 모금 들이켜도 진정된다. 그리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의미 있게 바라본다. 나무, 산, 새, 동물, 꽃, 구름, 별, 바람, 그들은 화를 안낸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한다. 자연은 자나 깨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만 한다.

■ 기도

## 제 7 과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 4:13-16).

### <예화>

교회를 방문하던 유명한 기독교 사업가가 간증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간증에서 말하기를 “나는 좋은 가족, 큰 집, 성공적인 사업,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 사역을 매우 관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저를 이사가 되어 달라고 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삼아 말했다.

■깊이생각하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에 아침 6시가 되면 교통체증에 대한 텔레비전 안내를 들곤 했다. “605 후리웨이가 지금 매우 막혔으니 다른 길로 가시오. 지금 슬라우슨(Slauson) 거리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하러 집을 나간 어떤 남자가 아직 잠자는 가족에게 아침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다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 우리가 잘 아는 911사건이 있다. 2011년 9월11일 아침8시42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110층) 2개의 건물과 버지니아주에 있는 5각형으로 된 펜타곤 국방부 본부 건물 일부를 비행기가 추락하여 폭발시켰다.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3천명이었다. 죽은 이들은 그날 아침부터 출근하여 열심히 자기 업무에 충신했다. 어느 누구도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지 몰랐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안개로 표현했다.

커피잔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나오는 즉시 사라진다.

■ 서로 나누기: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충실해지는 것인가요? 나의 사업이나 직장이 잘나가고 있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자만과 겸손 중 어떤 것이 더 작용하기 시작했나요? 그때 나는 어떤 기도를 했나요? 내가 만약 롯포에 당선된다면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8 과 방주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창 7:5-10).

### <예화>

일반적으로 홍수는 강이 넘침으로도 발생하고 산악지대에서는 눈과 얼음이 갑자기 녹음으로 발생한다. 1887년 중국 황하에서 일어난 홍수로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1970년 벵골만에 사이클론 폭풍이 지나가면서 해일이 일어나 바다홍수 재해가 발생했다. 거대한 파도가 방글라데시 해안을 덮쳐 약 27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집을 잃었다. 1953년 네덜란드에서도 바닷물로 인해 국토의 4% 지역이 물에 잠긴 일이 있었다. 지진과 화산폭발로도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 지방에 쓰나미가 발생한다. 1883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순다 해협에 있는 크라카타우화산이 폭발하여 35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홍수와 안식은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인다.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히 불러 방주를 120년간이나 만들게 하여 그 가족 8식구가 구원 얻게 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에 미래에 주어질 방주 안에서의 안식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노아의 그러한 위대한 안식에 대한 믿음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완성되었다. 방주를 120년이라는 긴 세월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짓기 위해서는 매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재고 또 재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완성한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각종 비난과 헐박으로 인하여 더욱 강하게 연단 받았을 것이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게 된다. 노

아의 진정한 안식은 연단과 순종과 불변의 소망과 가족 간에 일치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 깊이생각하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품안이 얼마나 참 안식을 누리는 곳인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아비규환의 방주 밖 세상과 120년 동안 걸려 만든 거대한 방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밖과 안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었다. 밖이 위험하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의 기도가 터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체험하게 된다.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덧 환난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나의 생명과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 환희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서로 나누기: 내가 만약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면 나는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싶었는가요?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자녀(신세대)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면 120년 동안 나의 가족들 간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겠는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 적이 있었는가요? 나는 진정한 안식과 물질적인 충족으로 인한 안식 간에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요?

■ 기도

## 제 9 과 어머니의 손톱자국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1-8).

<예화>

플로리다 남부 한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더운 여름 날 집 근처 호수가로 수영을 나갔다. 그 호수에는 가끔 악어가 다닌다. 그는 호수 한가운데에서 헤엄치던 악어가 호숫가를 향하여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속으로 계속 더 들어갔다. 집에 있던 어머니가 창밖으로 나와 아들을 바라보다가 악어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봤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나 다급하여 달려 나오면서 악어가 오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 어린 소년은 깜짝 놀라 방향을 바꿔 다시 육지 쪽으로 헤엄쳐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악어가 더 빨랐다. 아들이 호수가에 거의 이르렀을 때 악어가 먼저 아들의 다리를 물었다. 이때 어머니가 급히 아들의 팔을 잡았다. 둘 사이는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악어는 어머니보다 훨씬 강했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팔을 당겼다. 그때 한 농부가 우연히 트럭을 몰고 지나가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악어를 향하여 총을 쏘았다. 아들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몇 주가 지난 후 살게 되었는데 그의 다리는 악어의 잔인한 공격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팔에는 엄마가 남긴 깊은 손톱자국이 있었다. 어머니의 손톱자국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당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깊이생각하기: 남자들은 종종 그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곤 했다. 악어들의 공격은 일반적으로 먹이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악어는 진흙투성이의 강을 튀기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한테로 기어 나와 사람을 해한다. 악어가 근처에서 발견됐다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한다. 물에서 악어가 보이면 속히 나와야한다. 악어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해친다. 사탄의 밥은 무엇인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면 사탄은 냄새를 맡고 가까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트럭을 몰고 호숫가를 지나던 농부처럼 우리들의 곁으로 급히 달려오시어 사탄을 멀리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일찍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사탄을 물리치는 훈련이 평상시에 있어야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현실적인 삶에서 다음 중 누구와 같은 입장을 경험했는가요? 악어를 피해 육지로 급하게 헤엄쳐 나오는 아들, 아들의 팔을 죽기 살기로 끌어당기는 어머니, 악어에게 물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총으로 사살한 농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악어와 같은 사탄의 추격을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다. 사탄의 유혹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 경험이 있었는가요? 어떻게 물리쳤는가요?

■ 기도

## 제 10 과 꿈에 쫓기는 두 사람

■ 하나님의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14:9-14절).

### <예화>

사냥꾼 두 명이 아주 큰 꿈을 만나 놀라서 소총을 떨어뜨리고 엄폐물로 달려갔다. 한 사람은 나무위로 올라갔고 다른 사람은 근처 동굴에 숨었다. 꿈은 서두르지 않고 나무와 동굴 사이에 앉아 자신의 행운을 기다렸다. 갑자기 동굴에 있던 사냥꾼이 달려 나왔다가 기다리던 꿈과 거의 마주 치자 다시 뒤돌아 돌진했다. 이렇게 왔다갔다 두 번씩이나 했다. 그가 세 번째로 나타났을 때, 나무에 있는 동료는 미친 듯이 외쳤다. "우디 야, 미쳤어? 그 꿈이 떠날 때까지 동굴에 있어!" 우디는 혈떡이며 말하기를 "안 돼, "그 안에 또 다른 꿈이 있단 말이야."

■ 깊이생각하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먼저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여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광야를 매장지로 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거센 반항과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항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배를 채워온 그때를 동경하

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갑자기 닥치는 절망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나는 백성들이 취한 후회와 불신앙적인 말이며, 또 하나는 모세의 믿음의 말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이 구별되는 순간이다.

■ 서로 나누기: 내가 만일 내 앞뒤에 꿈이 있는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길 가운데 앉아있는 꿈과 굴속에 있는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홍해를 건너는데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한 후 지금까지 신앙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 기도

## 제 11 과 세차

■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scarlet)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crimson, deep red)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예화>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른 아침에 물걸레 몇 개를 가지고 자기차를 꼼꼼히 닦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물을 뿌리는 것은 안 되지만 물걸레로 약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들은 차체와 창문 그리고 타이어까지 정성껏 닦는다. 나도 가끔 그렇게 한다. 다 닦은 후에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자못 만족감을 표한다. 운동 삼아서도 괜찮다. 그러나 며칠 동안 차를 사용하다보면 또 먼지가 묻는다. 진흙탕도 묻는다. 결국 차 청소는 하루 이틀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는 한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이다.

■ 깊이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왜 너의 민족이 징계를 받았는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내가 그 이유를 너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라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가 있다. 나의 범죄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알기 쉽게, 그리고 인자하게 부모와 같이 설득시키신다. 하나님은 죄를 진홍색(짙은 붉은 빛)과 주홍색(자줏빛)으로 표현했다.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은 흰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예수님은 믿으나 죄는 아직 회개한 경험이 없는 데 구원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회개와 그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기도

## 제 12 과 아기와 자동차 뒤창

■하나님의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 10:29-31).

<예화>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아주 더운 날 9월에 한 여성이 실수로 10개월 된 아기 조카를 주차된 차 안에 놔두고 잠근 것을 잊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안 엄마는 미친 듯이 달려와 이모와 함께 옷걸이로 차창을 열려고 애를 썼다. 아기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하고 입에 거품을 내고 있었다. 그는 거의 죽음의 상황이 되었다. 그 장면을 본 어느 남자가 자기 차로 달려가서 타이어 나사를 돌리는 도구를 들고 달려와 차 뒤쪽 창문을 깨트리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구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뒷 창문을 부순 남자에게 오더니 화를 버럭 냈다. 왜 내 차의 뒤 유리를 깼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깊이생각하기: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수많은 작은 벌레들까지 모두 창조하셨다. 그가 창조한 것 들은 지렁이나 개미라도 동일하게 소중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새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나님은 참새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교훈하셨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어린아이 노인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존재들이다. 흐린 날이더라도 어린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두면 위험하다.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여 체온이 F104 도(C40도)가 되면 열사병으로 고통 받고 F107(C41도) 도의 온도에서는 사망 할 수 있다 고한다. 더운 날씨는 열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기는 절대로 차에 두면 안 된다. 뜨거운 차에 남겨진 아이들



은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 탈수, 장기손상 및 사망(F109도=C42.7)의 위험이 있다. 더운 날에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옷을 입고 시원하게 유지되어야한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가정의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마치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방금 뒤에 서있던 어린애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소리쳐 부르기도 하고 여기저기 살폈으나 찾지 못하다가 배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이가 바다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들의 잠바에 바람이 들어가 둥둥 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놀랐지만 도저히 다이빙하여 들어갈 용기가 안 났다고 말한다. 그러자 한 승무원이 날 세계 다이빙하여 아이를 구해낸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만약에 나 라면 바다에 떠있는 자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어린애가 차에 있었다는 것을 왜 잊었을까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가요? 자동차 창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차안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 기도

## 제 13 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마 26:41).

<예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뒤 돌아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마치 장미꽃 침대에서 자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밤, 나는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의 물리적 현실로 나타났고 그는 내 옆에서 걸어갔고 우리는 하루 종일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전도 활동에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를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컨퍼런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잡지 광고를 보고 나는 지원을 했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함께했고 작업은 육체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사실상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끄적했습니다. 나는 지역 오순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알아 가고, 전도, 기도 모임,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이혼한 청년과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친구들이 그를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나와 데이트를 시작한 것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우리는 교회에서 배척당했고 더 이상 교회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역경에 빠진 파트너로서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졌고 가능한 한 그 교회에서 멀리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두 대의 차에 싣고, 다른 쪽 끝으로 운전하여 직업과 살 곳,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일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불과 몇 달 후 남편

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충격이었고, 갑작스런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24 시간 동안 울었다가 그에게 이유를 물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몇 년 더 어린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와 6년을 살다가 이혼당해야 했습니다.”

■ 깊이생각하기: 영과 육은 한 몸 안에 존재하면서 서로 대결구조로 존재한다. 영은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며 육신은 사탄과 친하기를 원한다. 하루 24시간 두 존재는 서로 마주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 누가 인간의 육신을 쟁취할 것인가이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 삼손, 아간, 발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역대 많은 왕들, 나답과 아비후, 홉니와 비느하스, 신약에는 아니니아와 삽비라, 베드로, 안네와 암브레, 등이 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잠간이다. 유혹의 잔치가 앞에서 유혹할 때 정신을 차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침략을 물리쳐야 산다.

■ 서로 나누기: 나는 교만, 물질, 이성, 명예, 권력, 거짓, 위선, 탐욕, 주초, 도박 등 사탄이 가져다주는 각종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사탄의 유혹은 언제 나에게 나타나는가요?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강하게 접근할 때 어떻게 싸웠는가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든 경험은 있는가요?

■ 기도

## 제 14 과 폭풍에 밀리는 작은 배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마 14:22-32).

### <예화>

여러 명의 동네사람들이 배를 타고 앞바다로 나아갔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작은 배를 타고 가던 우리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 폭풍이 점점 거세지면서 작은 배를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떨어트리곤 한다.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풍은 계속 불어 닥치면서 배를 옆에 있는 바위로 밀쳐내고 있었다. 거기에 한번만 부딪치면 우리가 탄 배는 반 토막이 나고 말 것같다. 배는 점점 파도에 밀려 바위 쪽으로 떠 밀려갔다. 배에 탄 사람들은 더욱 소리 높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우리들이 탄 배는 어느 순간에 뒤집혀져 우리 모두의 생명을 앗아 갈수도 있다. 그 순간 폭풍이 한 번 더 무섭게 우리 배를 밀어붙여 배는 근처 바위 쪽으로 더 가까이 밀려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은 그치고 성난 파도는 잔잔해 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기적같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랐다. 죽음직전까지 갔던 작은 배는 하나님에 의하여 파도는 잠잠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안에서 평화로운 운항을 마쳤다”

■ 깊이생각하기: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었던 시각은 아직 어두운 새벽3시-6시 사이였다. 어두운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존재는 분명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바람은 앞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돛단배가 바람을 거슬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파도로 인해 배가 위험할 정도가 됐을 때 유령이 나타났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 예수그리스도였다. 제자들은 잠시 전 광야에 모여든 2만 명가량의 청중들의 먹을 양식을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제자들은 몇 시간 후에 바람과 파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역시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의 의해 바람이 잔잔해 지면서 베드로도 건짐을 받았고 제자들은 건너편 목적지 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됐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 서로 나누기: 나는 인생 폭풍을 만나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그때 그 폭풍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요?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요? 그런 폭풍에서 살아난 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요? 폭풍 같은 고난의 물결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15 과 꽃병과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 “시험(trial)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test)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유혹, tempted)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tempting)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tempted)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tempt)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tempted)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2-15).

### <예화>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꽃병에 들어있는 동전에 호기심을 가지고 손을 넣었다. 엄마가 들어오자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빼려고 할수록 손은 꽃병 입구에 더욱 꼭 끼었다. 당황한 어린이는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우는 소리에 놀란 엄마가 달려와 보니 꽃병 속에 손을 넣고 울고 있었다. 엄마는 말하기를 “네 손에서 동전을 놓아라. 네 손을 펴야해, 손을 펴란 말이야.” 그 어린이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울고만 있었다. 손은 꽃병 입구에 끼어 꼼짝 안한다. 이제는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망치를 가지고 와서 꽃병을 깨트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꽃병은 깨지고 동전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도 어린이의 손안에는 여전히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깊이생각하기: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시험(Test)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하여 오는 시련(고난)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에게 동전 향아리는 시험(Test)도 되고 유혹도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고 한 것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그를 넘어트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를 합격시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하고 유혹은 반드시 물리쳐야한다. 어린아이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꽃병까지 깨트리고 말았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호기심(유혹)에 이끌려 탐욕을 좇아가다가 손해를 본적이 있는지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하거나 앓았는가? 나는 신앙의 시험(Test)을 잘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험을 주셨는데 그로인한 시련(고난)을 참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경험이 있는지요?

■ 기도

## 제 16 과 내적인 얼굴 외적인 얼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예화>

유럽 왕실 가족 중 한 딸의 이야기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내 코가 둥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 자신의 코가 자신을 너무나 추녀로 보이게 한다고 불평을 했다.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은 그 딸의 코를 성형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유명한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붓대를 제거했다. 그녀의 추악한 윤곽은 사라졌다. 그녀의 코는 달리 보였다. 절개 자리도 치유되었다. 그 딸은 손에 거울을 들고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호기심에서 서둘러 보았다. 그러나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과거 이미지가 너무나 상처를 오랫동안 주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담당의사는 그녀가 실제로 어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6 개월 동안이나 그 소녀와 함께 있으면서 설득을 했다. 드디어 그녀가 자기의 달라진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녀의 모든 행동이 밝게 바뀌기 시작했다.

■깊이생각하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과 인간까지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외모와 내적인 모든 성품을 그대로 닮게 창조되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자” 그런데 왜 어떤 이는 얼굴이 잘생기고 어떤 이는 못생겼는가? 이것은 소위 인간사회에서만 통하는 비교가치관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가치관을 거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되 영적인 얼굴도 육적인 얼굴도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중 하나가 외모가 좀 못났다고 그 자식을 못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 보다 더 사랑한다. 얼굴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예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미는 영적인 성품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나의 육신의 얼굴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내적인 얼굴(내적인 인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본적이 있는가요? 영적인 얼굴은 어떻게 해야 잘 생길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인 얼굴은 몇 점이나 될까요? 나는 성형수술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가요?

■ 기도

## 제 17 과 아내 몰래 집으로 들어간 남편

■하나님의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행 5:1-10).

### <예화>

한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 까지 이야기 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콧등에 피가 흘렀다. 그는 밴드를 얻어 대략 부치고는 집으로 왔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온 식구들은 이미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그는 발자국을 죽이면서 살금 살금 화장실로 들어가 밴드를 갈아 부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로가보니 피 묻은 밴드가 보였다. 아침에 잠이 깬 후 부인은 어제 일에 대하여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먹지 말라는 술을 먹은 것이 들통이 나 곤역을 치렀다.

■깊이생각하기: 아나니아 (히브리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와 삽비라 (아람어, "아름답다")는 성령의 역사가 한참 역사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오면서 사탄이 동행하는 것을 몰랐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는 거짓 없는 예물을 드렸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려는 사탄(거짓의 아버지)이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 생각에 혼잡하기만 하다. 나답과 아비후는 우상의 불을 들고 들어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이려 했다가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 현장에서 두형제가 즉사했다.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허물고 들어갔을 때 성안에서 귀중품을 몰래 탈취하여 자기가 소유했다(수 7:1). 그것이 화가 되어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희생자가 엄청나게 발생했다. 신자들은 항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한다.

■ 서로나누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양심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요? 신앙인들도 사탄의 속임을 따를 수 있는지요? 교회생활에서 신자들 간에 서로 속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자들이 장사할 때 바람직한 양심행위는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18 과 빛을 본 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5-7).

### <예화>

로즈 크로포드라는 여인은 50년 동안 장님이었다. 그 후 그녀는 온타리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후에 진단차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의사는 그녀의 눈에서 봉대를 들어 올리면서 "믿을 수 없다"고 놀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의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순간이다.

■깊이생각하기: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우주가 흑암으로 덮여있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하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하는 천사장 루스퍼(계명성)가 하나님의 보좌위로 도전하는 배신으로 그 루스퍼는 흑암으로 쫓아냈고 사탄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시력장애로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밝은 태양빛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흑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시력장애인으로 있지만 영적으로 밝은 광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상인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서로 나누기: 내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방해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영적인 빛의 삶을 어떻게 경험했나요?

■기도

## 제19 과 성취와 성공

■하나님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3).

<예화>

헬렌 헤이즈는 회상하기를 나의 어머니는 성취와 성공을 구분했었다고 말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성취는 네가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잠시 칭찬받고 좋은 대접을 받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성취를 목표로 하고 성공이란 것은 잊어버려라.”

■깊이생각하기: “너의 행사(일들)을 주님께 맡겨라” 이 말은 마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직전에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초보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릴 때 자기보다 더 전문가인 선배에게 먼저 찾아가 설계에 대하여 의논하면 큰 도움을 얻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에게 의논하면 일을 잘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성취는 작은 일에도 있고 큰일에도 있다. 그러나 성공은 항상 정상에 이르러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은 나를 교만 하게 만들 수 있고 불안하게도 만든다. 나를 이기려는 경쟁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취의 연속은 성공보다 더 좋다.

■서로 나누기: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나 타인에게 성공하라는 말보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해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지금까지 성취와 성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가요? 나는 성취와 성공의 의미를 누구에게 말해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과 자녀들이 항상 성공하기를 원했는가요? 성취하기를 원했는가요?

■기도

## 제 20 과 올림픽 마라톤 마지막 주자

■하나님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 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예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는 탄자니아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였다. 많은 관중들이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는 것까지 보려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그때 탄자니아 선수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절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경기 도중에 무릎을 다쳤기 때문이다. 이때 갑자기 청중은 엄숙해 지면서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는 탄자니아 선수를 응원하는 것이다. 탄자니아 선수는 남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했다. 4시간에 걸쳐 전 코스를 완주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내 조국은 나에게 경기를 일등 하라고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치라고 여기에 보냈다” 올림픽 경기의 정신을 높이 드높인 탄자니아 아쿠아리는 국가와 청중 앞에 큰 교훈을 남겼다.

■깊이생각하기: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라톤 게임에 대한 예를 들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경주를 설명했다. 바울은 자기의 경주가 법과 열정과 목적이 분명하고 마지막에 상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까지 분명히 밝혔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셋째는 믿음을 지켰다. 넷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다. 다섯째는 상을 주시는 이는 의로 우신 재판장이다. 여섯째는 그 날에 내게 주신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는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우리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신앙고백이다. 마라톤 선수 아쿠아리의 정신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본받아야 한다. 그는 사도바울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다. 인생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사도바울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훌륭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 서로 나누기: 마라톤 선수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몇 번이나 쉬었는지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골인 지점을 향하여 뛰고 있는지요? 중간에 다쳤다고 아예 마라톤을 포기하지나 않았는지요? 나는 지금쯤 방향 감각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멕시코 아쿠아리 선수와 같이 풀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경주에서 끝까지 견디며 최선을 다해 달려 골인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지요?

■ 기도

## 제 21 과 아름다운 만남

■ 하나님의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역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40-42).

<예화>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늦게, 한 연로한 부부가 지친 몸으로 한 호텔로 들어갔다. 그들은 카운터로 다가가 방 하나를 부탁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호텔은 만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절망이었다. “남은 방이 있나요?” 노인이 물었다.

“미안합니다. 방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좋은 부부를 밖으로 내 보낼 수 없습니다. 혹시 제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요? 좀 불편한 면은 있으나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미안하여 거절하자, 그 청년은 괜찮다고 하면서 설득을 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그 노인부부는 그의 말을 고맙게 받아드리고 그 방을 달라고 했다.

노인 부부는 그 다음날 방세를 내고 점원에게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호텔을 떠났다. 점원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들었다. 2년이 흘렀다. 호텔 직원은 노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읽어보니 2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있었던 이야기였다. 그 편지에는 뉴욕 왕복 티켓이 들었다. 속히 방문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바로 뉴욕으로 가서 노인부부를 만났고, 5번가와 34번가의 모퉁이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새롭게 건축한 일류호텔이 있었다. 붉은 돌의 궁전 탑과 망루가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멋진 호텔이다. 그 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관리하기 위해 방금 구축 한 호텔이에요.” 젊은이는 말하기를 “농담하지 마세요.” 노인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확실히 믿어.” 노인과 그 청년은 확신의 찬 미소가 흘렀다.



■ 깊이생각하기: 필라델피아 한 호텔 점원은 겂옷까지 주고 십리를 동행한 희생정신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고대 페르시아 시대 때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령 들은 1마일(1.6km) 정도로 간격을 두고 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때 걸기도 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을 타기도 한다. 당시의 겂옷은 오늘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망토 같은 것인데 값이 비싸고 밤에 덮고 자는 소중한 옷이기 때문에 누가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필수품이다. 겂옷을 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과부, 고아, 불행한 사람, 병든 사람, 절름발이 가난하고 궁핍 한 사람일수 있다. 이때 이들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냉정한 사람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성문 안에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하거나 가난한 형제에게서 손을 가리지 말라”. 속옷까지 주고 십리를 걸어가 주는 사람은 희생을 갑절로 하게 된다. 물질적인 희생과 마음의 희생이다. 진정한 희생은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를 더 희생하는 것이다. 나의 이중 고통(겂옷과 속옷, 오리에서 십리동행)을 모두 감수하면서 이웃의 필요를 돕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 서로 나누기: 바울은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외투(10리 동행)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외투(10리 동행)주는 일을 일부러 무관심이나 회피한 적이 있는가요? 우리사회에 외투나 10리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저 할 때 실제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희생적 활동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 기도

## 제 22 과 아들이 깨어라 좋은 아침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태복음 24:44)

<예화>

흑인전용으로 예약된 조지아 공동묘지에 묻힌 유일한 백인 저명한 남자에 대한 실화가 있다. 그는 아기였을 때 어머니를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맨디라는 흑인 여성을 고용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자신의 임무를 진실하게 감당했다. 그 아들의 초기 기억 중 하나는 흑인여성 맨디가 매일 위층 내침실 곁에 부드럽게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침이 온다" ("Wake up, my son, God's morning comes!). 맨디는 그의 양 어머니가 되어 봉사를 계속했다. 그 청년은 대학에 갔지만 휴일과 여름에 집에 와서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갈 때 양 어머니가 부른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가 성공적인 정치가가 된 어느 날, 슬픈 메시지가 왔다. "맨디는 죽었다. 당신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가?" 그는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무덤 옆에 서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맨디 옆에 묻히고 싶다. 나는 부활의 날에 그녀가 다시 나에게 '일어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침이 온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훗날 그는 죽어 흑인 묘지에 있는 그의 양어머니 곁에 묻혔다.

■깊이생각하기: “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침이 온다!” 라고 되풀이 하면서 아이를 깨운 흑인 양모의 신앙은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위대한 여성이다. 천국에는 흑백 인종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얼굴로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순식간에 주님 곁으로 올라간 수많은 성도들을 땅에서 그냥

바라만 보면서 통곡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들림 받아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대 합창제에 동참하고 있을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한다. ‘공중에 나팔소리’ 라는 동영상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하늘에 엄청나게 큰 둥근 구름 띠가 형성되면서 제사장의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날과 같은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났다. 나는 지금 준비되었는가!

■ 서로 나누기: 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믿는가요? 나는 성도의 부활을 믿는가요? 의심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안 풀려서 인가요? 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날이 빨리 올까 봐 두려운 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예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정도 체험하며 사는가요? 흑인 양 어머니 멘디의 존경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도

## 제 23 과 나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예화> 연을 날리고 있던 어린 소년이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그 연은 계속 더 높이 올라가면서 아주 작게 보였다. 지나가던 한 어른이 연 날리는 소년에게로 다가갔다. 어린 소년은 줄은 잡고 있는데 연은 잘 보이지 않아 그 소년에게 물었다.“너는 연이 아직 공중에 떠 있는지 어떻게 아니?” 라고 물었다. 그 소년은 대답하기를 “나는 느끼고 있어요”

■깊이생각하기: 비록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죄를 책망하실 때, 질병을 고쳐 주실 때,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마음에 평화를 주실 때, 전도에 성공했을 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셨을 때,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때, 지혜를 주셨을 때, 거듭나게 하셨을 때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게 된다. 성령은 바람과 같고 공기와 같아서 항상 나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나와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느끼게 하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서로 나누기: 나는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요? 내가 성령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어떻게 순종하는가요? 하루24시간,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성령과 동행한 체험이 있는가요?

■기도

## 제 24과 뉴기니 원주민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예화>

뉴기니 원주민의 관습이 전해진다. 그들의 의식에는 노래와 춤이 있다. 그들은 광란에 자신을 작동시키고 의식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신 앞에 외친다. ‘살인 노래’라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관습과 그 의식은 유지했지만 살인 노래에서 더 이상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치지 않고 그들이 미워하는 죄의 이름을 외쳤다. 나는 식인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산골에 여행하는 한분의 동영상을 보았다. 원주민들의 얼굴과 온몸에는 험한 무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목과 입 그리고 코, 귀에 험악한 장식품들을 달았다. 악을 물리치고 적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소개되면서 그 무서운 얼굴을 했던 사람들의 외모와 문화까지 변화를 왔다. 티벳 쪽 히말라야 산맥과 파미르 고원 쪽 산지에 수십 종의 종족이 산다. 몽고 쪽도 수십 종이 된다. 어느 종족은 100%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마을 청년이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있다. 수백 년 한 선교사가 카투만두에서 걸어 3-4일은 올라가야 하는 멀고 험준한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 당시 잠자리와 음식은 얼마나 어려웠을 까. 지금 그 동네사람들은 영어를 제법 한다. 위대한 헌신적인 서양선교사들에게 고개가 숙여진다. 주님이 오시기 전 모든 종족이 복음화 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교회가 할 일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어느 종족의 한사람은 자기부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3일을 업고 걸어 도시로 가는 도중에 그만 숨을 거뒀다

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를 느꼈다.

■ 깊이생각하기: 기독교를 받아드린 종족은 항상 종교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며 생활환경도 바뀐다. 전기, 텔레비전, 스포츠, 오락, 주택 개량, 도로확장, 음식개량,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익히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한다.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원주민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고 크리스천 노래들이 울려 퍼진다. 자체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산되면서 토착선교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여 복음이 더 멀리 더 넓게 확장되면서 원주민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인격,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는가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는가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가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위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가요?

■ 기도

## 제 25 과 찰스 스펀전의 회심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8:12,13).

<예화>

영국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펀전 (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1834년 6월 19일 영국 에세스의 캔버턴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조합교회 목사였다. 스펀전은 신앙 속에서 양육되었으며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에 의해 길러졌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머니의 찬송가를 들으며 잠들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제 아들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스펀전의 나이 15세 때, 어느 주일 아침 그가 목적인 곳을 향하여 가던 중에 눈보라가 얼마나 강하게 몰아쳤는지 길을 바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길로 가다가 그는 마침 집회를 하고 있는 초대감리교회 (Primitive Methodist chapel) 를 발견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것이 그의 생애를 바꾸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다. 스펀전은 그 날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었다(사 45:22).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 속에는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스펀전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두움으로부터 찬란한 빛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짐을 체험했고 절망으로부터 구출되었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 1850년 5월 3일 라크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 그는 일생동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일

을 확장 시키겠다”고 서원한다. 15살 된 스펀전의 상상력은 풍부했고 기억력이 뛰어 났고 그의 독서량은 엄청나게 많았다. 설교자 스펀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없는 배, 수액이 없는 가지, 불이 없는 석탄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 깊이생각하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채무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 채무는 평생 갚아야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채무만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령체험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첫 번째로 갚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스펀전은 15세 때 성령체험을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회개의 경험이 언제 있었으며 그때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회개를 한 후에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 찬양, 교회생활, 전도, 가정생활, 직장생활과 사업 등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요? 회개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26 과 자연과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예화>

나는 평상시에도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생명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에 병상에서 창문 밖을 보니 그 푸르고 높은 나무들, 잔디, 언덕,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은 참새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특별히 실감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든든하게 전해 주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의 치유를 약속하마”. “나뭇가지가 바람에 자유롭게 흔들리는 것과 같이 너도 내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변함없이 묵묵히 창조적 본능을 다하는 그들, 꽃, 새, 바위, 시냇물, 바람에 날아가는 잎사귀들, 시냇물을 찾아 맑은 물을 마시는 짐승들, 푸른 하늘, 햇빛,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 널려 있는 약초들,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가 없이 인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보증서들이다.

■깊이생각하기: 우리는 생활주변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하다. 나는 이런 인간의 무감각은 죄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다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약초와 생명의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배열해 놓았다.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들을 취하여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주변 피조물들에 대한 찬양보다는 육신의 탐욕을 채우는 탐욕으로 자연을 악용하고 있다.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성 프란체스코(1182~1226)는

해와 달, 새와 짐승 등 자연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의 그런 감정을 백퍼센트 공감한다. 모든 창조물 속에서 일을 하시는 창조주의 숨결을 보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연을 영적인 눈으로 관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일상생활에서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글과 그림과 찬양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가요? 나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부르면서 얼마만큼 감동을 받는가요?

■ 기도

## 제 27 과 다수를 위한 소수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5-60).

<예화>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여섯 해군 조종사는 적 잠수함을 찾기 위해 바다를 수색할 임무를 받고 항공모함을 떠났다. 한참 후, 바다가 어두워지자 그들은 함선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때 선장은 배의 모든 조명에 소등을 명령했다. 적군에게 항모위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황한 조종사들은 무선을 통해 착륙신호를 계속 보냈으나 배는 여전히 깜깜했다. 단 하나의 빛만이라도 보여 달라고 호소했으나 항모에서는 불을 켤 수가 없다는 회신이 왔다. 여러 번 반복하여 간청했으나 오히려 항모에서는 라디오 접촉을 끊었다. 여섯 명의 조종사들의 운명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바다에서 버림을 당해야했다.

■깊이생각하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스데반은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한 사람 스데반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희열에 넘치는 마음으로 증언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초대교회 부흥운동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더욱 활활 타올랐다. 6명의 조종사들은 국가를 위해서 비행을 했고 항공모함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수몰되었다.

▪ 서로 나누기: 소수의 순교, 소수 엘리트의 의하여 다수가 사는 경우들이 많다. 나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지요? 나는 그 창조적인 소수에 속해 본적이 있었는 지요?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창조적인 소수인가요? 내가 만약에 6명의 조정사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 기도

## 제 28 과 네 사람 관계

■하나님의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잠언 15:20).

<예화>

아들이 나의 심장수술을 위해 큰 병원 세인트 쥬드(St Jude) 중환자 실로 데려다 주고는 차안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혹시나 안 받아주면 어떨까, 시간은 벌써 몇 시간이 흘렀다. 나는 중환자 대기실에서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수 시간을 기다렸다.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 있니”, “병원 주차장....” “그만 집에 가라”“아니 좀 더 있고...”왜?“그냥.....”그리고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오만가지 착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다. 기도는 얼마나....눈물은 얼마나 흘렸을까. 나는 지금도 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마다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울음이 북받치곤 한다. 아들이 그만큼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순간 아빠와 아들간의 커다란 감정과 사랑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평상시에는 별로 깊은 감정을 교환하지도 못했는데 그날 나는 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들의 그 심정과 그 아픔,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면서 멍하니 컴컴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오만가지 생각에 그 주차장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아내도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있다. 한편 아내는 날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했다고 한다. 아내의 얼굴을 아이패드로 통화하면서 보니 머리카락은 흩어졌고 눈은 부어 얼마나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느끼게 했다. 나는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만 전화를 끊고 침대에 걸터앉아 한참 눈물로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며느리는 나를 병원으로 여러 번 태워다 주는 일을 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며느리도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에서

는 내가 퇴원할 입장이 아닌데 나를 일단 퇴원시키고 며칠 후에 차례가 돌아오면 다시 부르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둘이서 현관까지 나를 휠체어를 태워 강제로 내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 갑자기 불안증세가 나타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 장면을 현관 앞에서 지켜보던 며느리는 나를 지켜보다가 달려와서 간호사들을 질책하면서 이런 환자를 왜 집으로 보내느냐고 소리 소리 치면서 따지니깐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그러면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오세요”. 그 자리에서 휠체어를 돌려 결국 재 입원하고 수술까지 잘 받게 되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강하게 나갈 줄 몰랐다. 이번에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며느리이다. 이 글을 통하여 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욱 진하게 다가왔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깊이생각하기: 나는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는 서로 한 생명체와 같은 관계이다. 아들들은 성장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서게 되면 부모와의 대화는 더욱 힘들어 진다. 많은 가정에서는 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여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내야하는 경우들이 많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네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깊은 관계를 체험했다. 아내와 며느리와의 관계도 모두 희생적으로 바뀌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가요? 나는 아들과 대화를 끊은 지 얼마나 오래되는가요? 내가 아들과 진정한 부자관계를 체험할 때는 언제인가? 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관심과 사랑스러운 관계인가요?

■ 기도

## 제 29 과 작은 시계소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왕상 19:11,12).

### <예화>

깊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냉장고가 없어 겨울동안에 얼어붙은 냇가에서 얼음을 떼어내어 땅 밑 어름 집에 두고 여름에 냉장고 대신으로 활용한다. 그 얼음은 톱밥으로 덮었고 벽은 두껍게 만들어져서 여름동안은 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름 집에 들어갔다가 귀중한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톱밥을 긁어모으며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의 동료 일꾼들도 같이 도왔지만 헛수고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소년이 어름 집으로 들어와 문을 모두 닫고 귀를 곳곳에 대면서 시계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 소년의 귀에 똑딱 똑딱하는 시계소리가 작게 들린 것이다. 시계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톱밥을 제쳐보니 그 시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깊이생각하기: 설교자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큰 소리보다 속삭이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 엘리야는 초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지진, 바위를 가르는 강력한 토네이도, 그리고 산불이 연상되는 불 같은 가시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왔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형의 지도자이었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유순한 자들이 다스리는 곳이지상에 이뤄질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곳에는 전쟁소리와 같이 큰 소리가 없다. 현대사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산다.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진리의 소리는 항상 작고 세미하게 우리의 귓가로 다가온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주변에서나 마음속에서 작은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느낌)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나는 큰 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자세로 들었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던가요?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아니면 아무소리도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 기도



## 제 30 과 나는 유월절 체험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출 12:11-13).

<예화>

나는 수술을 하고 바로 회복실로 갔다. 회복실은 호텔 같이 깔끔하게 준비됐다. 아마도 그 일층에 한 50여 병실이 있는 것 같았다. 그 모든 환자들을 중앙부에 위치한 간호사 센터(nursing center)에서 치료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내가 입실한지 3주쯤 지난 후에 내 옆방에 있던 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방을 옮겼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환자를 진단하던 간호사가 내방까지 들어와 나를 진찰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소식을 전혀 모르고 2-3일을 더 지냈다. 제 아내는 내가 입실을 하는 첫날부터 나에게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라고 일렀다. 문제는 내가 만일 코로나에 전염되었다면 나는 수술한 환자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온 식구가 초비상이 걸려 아들과 아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의논하다가 즉시 퇴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몇 시간 후에 퇴원을 했다. 자부가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흑암에서 풀려 나온 것처럼 그 자유 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손을 들고 찬양을 돌렸다. 문제는 지금 부터이다. 내가 확진이 된 상태로 집으로 퇴원하게 되었다면 나를 태우고 갔던 자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집에 있는 귀여운 세 손주들, 그리고 내 아들은....아내는....내가 집으로 퇴원한 후로 아내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보냈을까. 결국 두 번에 걸친 검

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 소식에 우리는 불안감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거푸 외쳤다. 나는 집에서 코로나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코로나가 내 옆방과 바로 내 침대 옆까지 들어왔었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 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출 받은 것과 같은 절실한 느낌에서 눈물이 북받쳤다. 이 사건은 분명히 유월절 사건과 흡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원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 후 집에서 아침 창밖을 내다보면 그 유월절 사건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부터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연거푸 찬양을 돌리곤 한다.

■ 깊이생각하기: 유월절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실감 없이 그저 기억하기만 한다. 애굽의 각 집마다 조금전 만해도 가족 간의 즐거운 대화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에 갑자기 장남이 순식간에 숨을 멈추는 비극을 당할 때 애굽사람들의 비통함이 얼마나 컸으랴.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도 이런 비극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초죽음이 되어 창밖만 바라보고 쥐죽은 듯 가슴을 조였을 것이다. 이집 저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통곡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흔들여 놓았다. 이번에 나는 현대판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생각하던 ‘현장신앙52주’라는 교재를 완성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유월절 같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요? 유월절 경험이후에 광야생활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요? 나는 유월절 경험 없이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나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영적인 느낌을 가지는가요?

■ 기도

## 제 31 과 우리 조상이 넘어온 파밀 고원

■하나님의 말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앓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었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욱단이며”(창10:21-25).

<예화>

나는 파밀고원(7495Km)이 높은 험한 산들만 겹겹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조상들이 넘어온 길은 참으로 놀라웠다. 파밀의 ‘파’는 ‘파’(onion 양파)이며 ‘미르’는 ‘언덕’이다. 완전히 한글이다. 파밀고원이 있는 그 일대는 천산산맥(천개의 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수천 개의 산들로 겹겹이 붙어있어 지은 이름인 것 같다. 그 산위에는 눈과 얼음들로 덮혀있어 여름 내내 얼음 녹은 물들이 시내를 이루며 산 아래 도시까지 흘러 내려온다. 파밀고원 일대는 4천 미터 이상의 높은 고지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다. 그 지역은 아주 넓은 들판이었으며 얼음 녹은 물이 흐르는 커다란 시냇물이 흘렀다. 그곳만 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면서도 집들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산재해 있다. 그들은 거기서 야크목축업을 하면서 생활에는 큰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동네에는 아주 넓은 호수가 가까이 있었고 그 호수 가에는 옛날에 사람이 거주했다는 증거로 웅기들과 다른 유물들이 있었다. 그곳까지 흙길이 잘 나있어 싸이클을 타는 부부가 올라가고 있었고 등산객들이 차와 도보로 파미르 고원을 넘어 타지기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넘어간다. 산에서 녹은 얼음물들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흘러 내려와 도시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여름에 그 시내 곁에 도짜리 펴고 발 담그고 앉아서 수박을 나눠먹으면 기가 막힌 분위기가 연출된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이 맑아서 식수로 사용한다. 파밀 고원은 인도 북부 타지기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기리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과 접경지경에 있다. 노아의 5대손 욥단은 당시 바벨탑에 동원된 욥단의 다른 형제들과 달리 반대방향인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수천 년을 걸었다. 우리 조상들이 지나온 길은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그러니까 욥단의 후예들은 중앙아시아 전 지역과 중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살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민족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한 종족이라는 확신이 왔다. 그래서 결국은 말세에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계복음화에 다시 한 번 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세상에 한국 사람만큼 모이기에 힘쓰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헌신, 물질, 개인전도, 선교사파송, 구제 등에 열심인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남북이 통일되면서 성령의 불길이 북한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고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이스라엘까지 진격하면서 전도의 불길을 더 크게 일으킬 것으로 믿고 있다.

■ 깊이생각하기: 한국 사람의 혈통은 분명히 이스라엘인이며 우리 민족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 욥단의 후손이다.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면 욥단의 후손들이 아라랏산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해 돋는 쪽을 향하여 이전했다고 나온다. 그 주요한 경유지가 타지키스탄 등 ‘스탄’(땅)자가 들어가는 6개국이다. 어느 인류학자가 중앙아시아인 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과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해 뜨는 곳 땅 끝에서 그들은 성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었고 지금도 티벳 어느 종족은 흰옷을 입는다고 한다. 욥단의 형 벨릭은 그 후손들과 함께 서쪽으로 가서 수멜 국가를 세우고 바벨탑을 건설했다.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수멜 국가의 창시자는 니므롯이다. 그러나 욥단과 그의 후손들은 바벨탑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동쪽을 택했다. 그들은 수많은 산악지대사이로 넘어오면서 아리랑(알이랑)을 불렀다. 알(알=엘=하나님), 이랑(함께, 순이랑, 복순이랑)으로 순수한 한국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는 욥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노래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는가요?. 단군신화에 나오는 환인과 환웅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한 민족이라는 것을 믿는가요?. 나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는가요? 앞으로 이스라엘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요?

■ 기도

## 제 32 과 내 장갑 속에는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17).

<예화>

어떤 사람이 장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 손에 장갑이 있다. 장갑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손이 들어 있으면 장갑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장갑 속에 누구의 손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과 일의 종류 등 여러가지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 무능한 사람이 그 장갑을 끼고 있을 때는 그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능력 있고 진실한 사람이 그 장갑을 끼면 그 장갑은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해 낸다. 그리고 그 장갑 속에 주님의 손이 들어있으면 주님은 내가 상상 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신다.

■깊이생각하기: 바울은 신자 자체를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비유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만 성전이었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 제물을 규정대로 번제 단에서 태워 드려야 했다.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에 계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내마음속에 계신다. 이 하나님이 장갑과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서로 나누기: 지금까지 내 장갑 속에는 주로 누가 있었는가요? 내 장갑 속에 하나님의 손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이 필요한가요?

■기도

## 제 33 과 Q&A 방법은 전도 100%

■하나님의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7-29).

<예화>

나는 몇 년 전 성결대학에서 3년간 선교학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양과목으로 성경이야기를 1학기 가르치라고 했는데 62명이 참석했다. 첫 강의를 시작되는 날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들 중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했더니 20%정도만이 손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학기는 질문지와 응답형식으로 강의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종이조각을 나눠주고 교회와 성경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을 기록해서 내라고 했다. 매주 수십 장씩 나오는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한 학기를 진지하게 보냈다. 마지막 날 나는 다시 질문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지를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었는데 또 질문할 것이 있는가요? 했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의문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갈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세요 했더니 몇 사람 빼고는 다 손을 들었다. 거의 100%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나 교회 밖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의문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Q&A’라는 제목으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어 시중에 내놓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 그 숫자는 아마도 현재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질문과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쉽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전도하는 법을 이번 에 확실하게 체험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 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관심하고 있다. 속히 Q&A전도방법을 도입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바란다.

■ 깊이생각하기: 우리주변에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인간의 작은 머리와 극히 제한된 지식으로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 봄으로 그의 의문이 풀렸다. 전도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외관만 보고 교회가 왜 저렇게 크고 사치해, 그 돈 다 어디서 생겼지. 그들은 교회가 지하실이나 2층을 얻어 간신히 교회를 운영하면서 셋돈도 어려워하는 개척교회 현실을 잘 모른다. 그들은 성경과 교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교회를 안나간다. 그들에게 일대일로 만나서 사귀고 알아듣기 쉽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의문이 풀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Q&A 방법으로 설명해준 적이 있는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목사님이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주간 등에서 교인들에게 꼭 한사람씩 데리고 오라는 말에 부담을 느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는가요? 내가 전도할 때 그들이 교회나 신자들에 대하여 주로 비판이나 불만을 가지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34 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창18:1-8).

<예화>

나는 차를 타고가면서 길가에서 흙리스가 땀을 흘리면서 카트에 짐을 넘치도록 싣고 어디 론가 열심히 가는 것을 본다. 그때마다 나는 “주여! 저에게 의식주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곤 한다. 또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주여, 저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들 중 누가 천사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루는 우리 선교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짐들을 다 옮기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각으로 만든 5미터 정도가 되는 높은 사다리이다. 천정 조명을 달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긴 나사가 박혀있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로 몇 개 하다가 힘들어서 제 아내와 함께 낮을 놓고 밖 주차장 보도 블록에 앉아있는데 웬 픽업트럭이 들어오더니 “May I help you!” 한다. 그 사람은 옆 사무실 주인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미 문을 달았는데 왜 거기로 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기도하는 그룹에 멤버이고 여기 저기 다니며 목수 일을 자원하여 돕는다고 한다. 그 분은 힘이 나의 두 배나 강했고 덩치가 컸다. 그 큰 사다리를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이 순식간에 해체시켰다.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온 것이 틀림없다. 선교사 존 파이톤은 뉴 헤브라이드스

아일랜드(New Hebrides Islands)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이교도들이 그 선교사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통보하였다. 파이톤 선교사는 새벽이 되도록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 그 날 밤 불에 탈줄 알았던 선교센터는 그대로 있었고 밖을 나가보니 그 폭력배들이 모두 사라졌다. 1년 후 그 폭력배 두목이 선교사를 찾아와 자기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는데 “그때 내가 보니 선교사님집 주변에 수백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난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겁이 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잘 아는 목사님이 이민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미국 들어올 때 한국에 남아있는 부인이 집을 사라고 돈을 엄청나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와서는 집은 안사고 선교사, 불쌍한 사람들, 장학금 등으로 가지고 온 돈을 다 썼다. 후에 부인이 입국하여 집을 사자고 하니 돈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인은 화가 나서 다시 한국으로 나가 살겠다고 보따리를 쌌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주차장을 내다보니 한 여인이 똥똥 떠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걸어서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아내를 만나 뭐라고 타이르는 것이다. 내용은 모르나 그 후로 부인은 한국을 나가지 아니하고 미국에 남아 지금까지 돈 잘 벌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자녀들이 하버드 등 유명학교를 졸업하여 행복한 가정들을 꾸미고 살고 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맞이한 사람들도 천사였고 구약과 신약에는 여러 번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 깊이생각하기: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 받은 존재들이다. 그 천사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인간이 차려놓은 음식까지 먹는다. 문이 닫혀도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천사들은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하에서 움직인다. 현대사회에서도 천사들은 이곳저곳에서 활동한다. 그렇다고 천사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

배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필요한 장소와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 들을 돕는 것뿐이다.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다. 이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누가 천사인지 모른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일 전쟁이나 그 외에 수많은 전쟁 중에 천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도와줌으로 승리한 사실들이 여러 번 보도된 적이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1-3).

■ 서로 나누기: 나는 천사의 존재를 믿는가요? 나에게도 부지중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가요? 나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가요?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말도 하고 음식도 먹는지요?

■ 기도

## 제 35 과 낭비한 날과 가장 멋진 날

■하나님의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 3:21).

<예화>

19 세기 정치인이자 외교관 인 찰스 후렌시스 아담스 (Charles Francis Adams)는 일기를 썼다. 어느 날 그는 “오늘 내 아들과 낚시하러 갔다. 하루가 낭비되었다.” 그의 아들 브룩 애덤스도 그날 일기를 썼는데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갔다!” 라고 기록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낚시하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라고 기록했다. 낭비와 가장 멋진 날의 차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한다. 가장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관심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취미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가장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족원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대표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 아내와 자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절로 기분이 좋다. 그들은 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가정생활이 행복하면 밖에 일도 신나게 하게 된다.

■깊이생각하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른들은 이런 순수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은 말로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끌어 줘야할 것을 둘러선 어른들에게 엄하게 권면했다. 타락한 사회일수록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린이 우선주의이다. 예수님은 어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좀 떨어져서 관망한다. 가정에서 자식들은 여호와

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장차 자기 가정을 대표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화살 통에 화살 같은 인물들이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희망이요 큰 위로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하게 축복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뤄주신다. 기도를 많이 받고 성장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서도 영적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과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식과 아내를 도와주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나는 내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는가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요?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얼마나 좋은 대화를 하고 있는가요? 나의 자녀들은 부모들과 어느 정도 대화하기를 원하는가요?

■ 기도

## 제 36 과 C.C.M 문제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 33:1-3).

<예화>

한국이나 미국의 찬양 팀들이 부르는 찬양 곡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 C.C.M(기독교현대음악, Christian Contemporary Music )에 대하여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요즘 C.C.M 이라고 해서 예배시 무비판적으로 부르는 찬양곡의 리듬이나 멜로디의 시조는 1950년대에 영국의 비틀즈이다. 그 음악의 배후 사상은 포스트모더니즘(후기현대주의, Post Modernism) 이다. 후기현대주의 세대란 제1차, 2차 세계전쟁 이후로 태어나는 세대를 말하는데 이들 문화의 특성은 기존세대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된다. 기존 세대사람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그 기성세대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 후 인간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성세대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전개되었다. 그들의 부모세대와 사회기존 권위체제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그들의 권위는 무엇인가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성세대가 누리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좀 더 자유로운 사고와 합리적인 표현방식을 추구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이나 건축 그리고 음악계로 널리 확장되어나갔다. 1950년대 영국의 비틀즈에서 시작된 이들의 음악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다. 비틀즈의 머리와 의상들은 기성세대들이 못 봐 준다. 그리고 그들이 전기기타를 개발하여 더욱 날래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쏟아내면서 현란한 무대를 만들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열광했다. 이런 흐름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면서 Rock Music 등으로 발전하였고 그것이 히피(hippie)문화권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갔다. 한편 교회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미하여 C.C.M.을 만든 것이다. 제일 앞서가며 C.C.M.을 개발한 교회가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교회이다(축 스미스.1962년도). 축 스미스 자신이 히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시 해안가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히피들을 전도하면서 교회가 차고 넘쳤다. 그때 그 교회 예배음악은 히피들에게 적합한 찬양들이었다. 그들의 찬양곡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아울러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곧 그들의 삶 자체를 반영한 것이다. 그 교회를 참석해 보면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는 사람보다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애인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축 스미스의 설교는 주로 상담과 치유였다. 그들의 음악은 오늘날 한국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C.C.M.의 원조들이다. 이 교회에서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양산하여 히피들을 전도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 흐름이 빈야드(Vineyard, 남가주 Imperial High way)교회를 설립했고 그들 교회들도 큰 부흥을 이루었다. 그리고 새들백 교회가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지면서 C.C.M. 부흥은 유럽까지 퍼지었다. 유럽 목회자들이 1년에 700명 정도가 새들 백 교회의 릭워렌 목사로부터 목회철학을 배우고 간다고 한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시카고 에 있는 힐송교회(Hillsong Church)들에서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강한 멜로디와 리듬, 가사를 넣어 예배시 자유롭게 부름으로 감동력이 매우 강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다. 히피 찬양곡들과 한국인 1세대 한국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곡은 멜로디와 리듬 등에서 서로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문화적인 거부감이 생기면 은혜는 모두 파괴된다. 예배음악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 영적인 새로운 체험이 발생해야하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한다. C.C.M.은 다분히 포스트 모던주의에 영향을 받은 음악장르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청년 들이나 외국에 사는 한인2세, 1.5세 들이 C.C.M.을 복음적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선택기준으로 선별하여 받아드리지 않고 단지 문화적인 흐름이라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받아드리는 교회들이 있어 예배를

세속화시키고 메마르게 만든다. 성령의 감동이 빈약한 C.C.M.을 한인 1세 예배에서와 한인2세들이 부른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고 싶지 않다. 혹시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수 있다. 예배찬양은 회중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끌어 올리는 능력을 가져야한다. 그러므로 예배찬송은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반드시 수반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성가, 부흥성가, 그리고 일반 찬송가가 있는데 복음성가 중에는 은혜가 충만한 곡들이 많이 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주님을 몰랐네...” 등 기타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송, 부흥회 때 부르는 찬송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찬송들이다. 일반 찬송가의 가사나 곡을 쓴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서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곡과 가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불러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빈약한 C.C.M. 음악은 친교시간이나 전도할 때에 부르는 것으로 추천하고 싶다. 요즘 일부 찬양 팀들은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팀도 있다. 찬양 팀은 특별기도회를 통해 자기들이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회중예배로 나와야 한다.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1세 예배 때는 C.C.M.중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찬송들만 골라서 불러야한다. 찬양 팀이나 성가대가 부르는 성령 충만한 찬송은 회중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끌어 올릴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책망한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찬송, 성령의 임재가 빈약한 찬송은 모두 가짜다. 담임목사님은 찬양 팀을 기도로 무장시키고 곡 선택을 간섭하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가만을 선택해야한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인위적으로 만든 C.C.M. 찬송가는 예배를 가짜은혜로 이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가 냉랭해지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희박한 C.C.M. 예배음악의 영향도 크다.

■ 깊이생각하기: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새 노래(성령의 찬송)여야 한다. 새 노래란 의인(거듭난 사람)들이 그의 영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함께 찬양에 동참케 한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창조의 세계와 구원 얻음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다.

■ 서로 나누기: 내가 드리는 예배는 새 노래를 부르는가? 새 노래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배 중 찬양 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나는 성령의 감동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요? C.C.M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찬송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37 과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 하나님의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느 1:5).

### <예화>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크지요?” 아버지가 하늘을 가리키며 비행기 한 대가 가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 비행기는 얼마나 클까?” 아들은 “비행기가 저렇게 작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트럭에 타라고 했다. 아들은 신이 나서 달려가 아버지의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공항으로 달린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비행기를 직접 보여주었다. 아들은 비행기가 저렇게 큰 것을 보고 놀랐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요?” 아버지는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서 보면 작고 가까이 가면 우주 보다 더 크단다”.

■ 깊이생각하기: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며 지존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시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내가 멀어질수록 그도 멀어지고 내가 가까이 가면 그도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이 클 때는 하나님도 크게 보이시고 나의 신앙이 작을수록 하나님도 작게 보인다. 우주와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주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를 찬양하며 살게 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요? 하나님이 얼마다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나타낸 성경말씀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가요? 나는 내 주변과 다른 나라에 아름답고 거대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 기도

## 제 38 과 누가 저를 당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예화>

열두 살 된 소년이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했다. 강단에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구원 얻은 체험을 말해보라고 했다. 어떤 이는 비전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체험을 한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때 한 소년이 일어나 말하기를, “나는 마치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물고기를 잡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거나 들을 수가 없는데 저는 누가 저를 계속 당기는 감을 느꼈어요.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당기고 계신다고 믿어요”.

■깊이생각하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정도가 된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의 대행자인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가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영(spirit)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야기는 인간 속에 존재하는 영(영혼)이 담당한다. 그 영은 눈이 있고 귀도 있고 감각이 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는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손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서로 나누기: 나는 혹시 내 머리로, 내 눈으로, 내 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가요? 낚시하는 어린이처럼 나는 마음(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요? 어느 교회 청년은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집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내 뒤에 서 계신 것을 얼마동안 확실하게 보았다고 간증했다. 예수님은 왜 거기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는 그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나는 혹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요?

■기도

## 제 39 과 레오날드 다빈치의 마지막 말

■하나님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18-21).

### <예화>

레오날드 다빈치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나는 하나님과 인류를 불만족스럽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작품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나리자도 충분치 못했다”

■깊이생각하기: 눈먼 사람은 아침 일출의 영광과 산을 아름답게 수놓은 단풍들을 볼 수 없다. 청각 장애인은 장엄한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힘이 있는지를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인간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즉, 구원과 사랑, 채찍, 보호, 인도하심, 일용할 양식, 신령한 복, 번영, 건강 등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행해지는 각 순서들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어떻게 느꼈는가요? 내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경험이 있는가요? 나는 교회 안과 밖에서 기쁨 없이 봉사 한 경험이 있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비스러운 세계를 어떤 때에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했는가요? 나는 그런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요?

■ 기도

## 제 40 과 크리스천과 정치참여

■하나님의 말씀: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

<예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정치군’을 혼돈하고 있다. “좋은 정치는 좋은 종교이고 좋은 종교는 좋은 정치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군은 정치적인 출세의 야망을 품고 직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라가 공산화되어도 나는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행동도 용기도 없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향하여 아예 정치가로 나가지! 그 사람은 정치군 다 됐어, 등으로 빈정대곤 한다. 북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음모를 세워도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독재정권이 교회현관을 못질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교도소로 보내는 법을 만들려고 해도, 중국공산당처럼 교회헌금을 공산당이 모두 가져가고 설교를 검열하고 전도를 금하려고 해도 나는 기도만 한다고 한다. 교회지도자들이 겁을 먹고 정치에 아부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기피하는 것을 보면서도 거부반응이 별로 없다. 나라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나와 내 가족들 조차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게 되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무사안일 보신 주의자들이 많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인데 그 뒤에 행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왜 편집해 넣었을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할까봐 그렇지 않았을까.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함을 가르쳐 주고 싶은 야고보의 심정과 편집자들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왕을 하나님이 정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왕에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경고했다(왕상10:9). 왕은 어디까지나 정의를 말하라고 했다(시편58:1). 이스라엘의 왕들이 포악, 겁탈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경고했다(겔 45:9). 구약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

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게 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세상 정치와는 아무관계가 없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를 계속했을까. 정치와 종교는 모두 하나님 나라영역에 속한다.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종교도 정치도 바로 선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나타난다. 그것은 선지자의 사명이다.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세웠고(미가3:1)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렘22:3)고 했다.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과 포악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들어서 왕을 비판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와 정치꾼을 혼돈하면 안 된다. 나라가 위험해 질 때 항거하고 바른 소리를 내면 그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만 보고 나오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수 없다. 정치꾼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 사리사욕과 동성애 같은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 때 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악법을 평등, 인권 등으로 포장하여 법을 만든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평가없이 그대로 받아드린다. 우리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전체 영역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베드로가 말한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할 때이다. 존 칼빈의 저항권 사상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속 권력들에게 침을 뱉고 강력히 저항권을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앙생활에서 “정치는 예외”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 자신이 네델란드 총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국가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보았다. 카이퍼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이 시대에 남발되는 어리석은 주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했고, “신앙과 삶의 분리가 곧, 세속화”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굶어가며 비밀리에 싸웠던 애국지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기독교 보수파 일부



위선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고는 기도 뒤에 숨어서 나만 의로운 체한다.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은 주지사 시절에 침례교 교단에게 보낸 편지 속에 “주정부는 절대로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정부와 종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1947 년에 “의회는 종교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가 3.1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이 한국에서 금과 철과 석탄, 쌀과 나라 귀중품들을 탈취해갈 때 반대하고 소리를 높이니까 교회는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교회지도자들을 압박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동시에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군 들을 채찍으로 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걷어차는 분노를 발했다. 오늘날 어느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구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교인들을 내쫓는다면 일부 거룩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할까. ‘예수님 너무 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반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동을 향하여 물리적인 방법까지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잡은 것이다. 그리고 형식과 위선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셨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을 때 이에 단호하게 항거해야한다. 단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그 운동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온전히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 깊이생각하기: 1956년에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의하여 미국 1 달러 화폐에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글을 썼다. 우리는 경건한 기독교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표기 부정, 투표함 바꿔치기, 가짜 투표지 사용 등에 대하여 그 실상을 담대하게 들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를 도덕적인 타락(동성애)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후보들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위해 싸우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 후보보다 훨씬 큰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의 최종 결과를 맡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 서로 나누기: 성경에서 왜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 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고 싶은가요? 나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 그 이유는? 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반기독교 사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참여해 본적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41 과 맥도날드 스마일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롬 12:13-17).

<예화>

“나는 세 명(14세, 12세, 3세)자녀의 어머니이며 최근에 대학 학위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했던 리포트는 사회학이었다. 교수님은 ‘모든 인간이 은혜를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다’ 는 말을 남기고 강의를 마쳤다. 나는 그 교수의 말에 절대적인 영감을 얻었다. 그 교수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smile”이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3월에 맥도날드를 갔다. 나는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남편조차도 그랬다. 나는 한 인치도 이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왜 움직였는지 보려고 몸을 돌리자 내 안에는 압도적인 공포감이 감돌았다. 내가 돌아서자 나는 끔찍한 ‘더러운 몸’ 냄새를 맡았고, 내 뒤에는 두 명의 가난한 노숙자 남성이 있었다. 내게 가까이 있는 키 작은 홈리스를 바라볼 때 그는 웃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하늘빛 푸른 눈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맥도날드 직원이 그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다. 그중 한사람이 직원에게 “good day”라고 인사하며 자신이 쥐고 있던 몇 개의 동전을 세었다. 두 번째 남자는 친구 뒤에 서서 두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거렸다. 나는 두 번째 남자가 정신적으로 결핍되었고 푸른 눈의 신사가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 느꼈다. 카운터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그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커피는 모두 믹스”로.. 그들은 그날 단순히 따듯한 커피로 몸을 녹이고 싶었다. 나는 돌이켜 그 파란 눈의 친구를 껴안으며 스마일 했다. 그

리고는 카운터 아가씨에게 별도 식반으로 아침식사를 더 부탁했다. 그 후 나는 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그 파란 눈동자 남성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카운터에서 식반을 받아들고 그들 식탁으로 다시 가서 내려놓고는 파란 눈 신사의 차가운 손에 손을 얹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저를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 내가 앉아있을 때 남편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어”. 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맥도날드를 나오면서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았다.

■ 깊이생각하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했다.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삶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평상시에는 혹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으나 우리가 좀 귀찮은 환경 속에서는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긍휼과 사랑의 원천은 예수그리스도이시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행을 한 적이 있는가요? 내가 물질의 여유가 좀 있을 때에 어려운 이웃을 어떤 식으로 도왔는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회개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 기도

## 제 42 과 엘리웃의 흉터 얼굴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롬 2: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삼상 16:7).

<예화>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찰스 윌리엄 엘리웃 (1834-1926) 은 하버드 대학 총장(1869)이었다. 그에게 평생 고통으로 따랐던 것은 오른쪽 뺨에 길게 생긴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검붉은 반점이었다. 이 반점은 엘리웃으로 하여금 마음의 어두운 시간들을 갖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와 엘리웃은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를 찾아가 얼굴 반점을 고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엘리웃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 아들이, 너의 고통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는 것을 잊게 해달고 하면 되지 않겠니”

■깊이생각하기: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다. 그러나 그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그의 후임 다윗은 양을 치는 순진한 시골 목동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예수님의 외모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과 같이 내세울만한 풍채는 아니었다. 사도바울에 대하여는 전승에 따르면 체구가 작고, 대머리이고, 다리가 휘었고, 미간이 아주 좁고, 코가 긴 편이었고 눈도 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93cm의 큰 키에 몸은 비쩍 마르고 촌스럽게 생겨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릴라라고 불렀다. 당시 반대파들은 링컨을 빗대어 “여러

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빈정대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도다" 사람의 외모보다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와 물질, 학력 등을 보고 결혼을 한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품과 능력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외모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나의 이웃이나 한 교회 교인이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요? 나는 어느 한 신체 장애인에 대하여 꾸준하게 따듯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엘리웃의 생각과 그의 어머니의 권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기도

## 제 43과 죠지 물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 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3:5).

<예화>

1800년대 죠지 물러는 영국에서 기독교 고아원 사업의 창시자로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응답이 지연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렸을 때 두 친구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0년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다가 물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친구들 중 한 사람이 회심했고 다른 하나는 그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깊이생각하기: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여 올린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다. 다윗의 말대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 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 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결론이며 답이다. 물러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100미터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가르쳐 준다. 기도는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보이면 중간에 포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뤄질 때 까지 믿음으로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신앙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쪼지물리는 예산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고아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날마다 채워지는 대로 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 서로 나누기: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꾸준히 해 오다가 중간에 그 기도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이 계속될 때 나는 어떻게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요? 나는 옆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뤄졌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었가요?

■ 기도



## 제 44 과 갈림길에서의 선택

■ 하나님의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5,6)

<예화>

시멘즈(Seamands)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이 된 무슬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에게 그의 몇몇 친구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당신이 길을 내려가다 갑자기 두 방향으로 길이 갈라진다면 어느 길로 가야할지 모를 것이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 길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쪽 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럴 때 당신은 누구한테 물어 보겠는가?” 질문했다. 대답은 “산 사람이다.”

■ 깊이생각하기: 도마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왜 오셨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확증되는 것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다. 무슬렘들이 기독교로 전향한 친구에게 묻은 것도 도마와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나갈 때 두 갈래 길에 설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어떤 미국사람의 사무실에 갔더니 벽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주와 상징그림들을 붙여 놓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붙여 놓았냐고 물으니 그중에 어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 서로 나누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위에 미국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요?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시점에서 육신 쪽을 선택했는가요 하나님 쪽을 선택했는가요? 나는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능히 천국으로 인도해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요? 한국에서 천주교를 대표하는 모 사제는 말하기를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기독교인 된 후에도 사주팔자를 보러간 적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45 과 어머니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예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가 된 에드워드 스타이첸(Edward Steichen)은 첫 번째 사진을 찍는 날 거의 포기했다. 16 살의 젊은 스타이첸은 카메라를 사서 50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은 피아노를 치는 여동생의 초상화였다.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고 형편없는 사진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여동생의 마지막 사진은 너무 아름다워서 49 장의 실패를 능가하는 사진이라고 칭찬했다. 어머니의 격려는 비전을 가진 한 젊은이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사진에만 전념한 결과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장래를 좌우한다.

■깊이생각하기: 아버지는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사랑이 어머니 보다는 덜 희생적인 것 같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투명스럽게 말을 하지만 어머니는 따듯한 사랑의 격려를 해준다. 그러나 자식 교육이란 어머니의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엄한 교육도 필요하다. 실제로 자식들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비유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변증했다. 만약에 에드워드 스타이첸이 아버지의 평가만을 받았다면 그는 좌절의 길을 걸었을 것이지만 다행

이도 어머니의 따듯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진작가가 된 것이다.

■ 서로 나누기: 내가 만일 스타이첸의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가 만일 어머니라면 아들 스타이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처럼 느꼈는가요? 아버지처럼 느꼈는가요?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무엇인지요?

■ 기도

## 제 46 과 피아노로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전 13:1-5).

### <예화>

연로 한 어느 과부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열망했다. 이를 위해 기도한 후 그녀는 피아노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그녀는 오클랜드 트리뷴에 이 작은 광고를 게재했다. “저는 피아니스트로서 아프고 낙담 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 전화로 찬송가를 연주해 드립니다.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공고문에는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희망자들이 전화했을 때 “어떤 찬송가를 듣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몇 달 만에 그녀의 연주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이 여인의 결단과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고 외로운 자 약한 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한 고귀한 봉사이다..

■깊이생각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9가지 은사를 받는다. 그 중에서 은사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하신다. 예화 중에 나오는 할머니는 자기의 은사를 필

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과감하게 나눠주면서 큰 위로를 주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힘든 일을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현재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나는 내가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나는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위에 소개된 할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요? 나는 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은사 동우회 같은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떤지요?

■ 기도

## 제 47 과 가정은 자녀들이 일등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 27:21).

<예화>

긍정적인 말을 잘 안하는 가정에 대하여 다음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해 냈어, 훌륭해”,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우리 집에 보물이야”, “오 놀라워, 아름다운 작품이야”, “너무나 잘 했어”, “너무 창의적이야”, “너는 우리가정의 기쁨이야”, “너는 그것을 드디어 해냈군”, “사랑해, 아들이야” “사랑해 딸아”, “넌 책임감이 강해”, “넌 최고야”, “넌 정말 열심히 노력 했어”, “난 너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너는 아주 훌륭해”, “나는 네 뒤에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깊이생각하기: 은은 도가니 속에다 넣고 정제를 하고 금은 풀무불로 열을 가함으로진짜를 구분한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그의 불순물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제거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난다. 자녀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에 예민하다. 집밖에 사람들로 부터 무시를 당했다든지 무관심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으면 그런 상처들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가정은 자녀가 밖에서 수렁에 빠진 발을 건짐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발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출발지점이 되어야한다. 가정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에너지와 비전을 받는 곳이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왕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일등도 되고 성공한자가 되고 미래에 밝은 환상을 보게 된다.

■서로 나누기: 나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중에서 어

느 쪽 말을 더 많이 하는가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의 뒷모습을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자녀들에게 왜 긍정적인 말을 잘하지 못하는가요?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요?

■기도



## 제 48 과 전갈을 한 마리씩 바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4~5).

<예화>

‘바늘의 눈’이라는 뉴스 레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한 성자가 강독으로 뿌리가 뺏어있는 나무 아래에서 아침 명상을 했다. 명상하는 동안 그는 강물이 치솟아 오르는데 뿌리에 걸린 전갈이 곧 익사할 것 같은 것을 발견했다. 성자는 전갈을 풀어주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전갈이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 한 관찰자가 다가와서 성자에게 말했다. “그것이 전갈인데, 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성자는 “그렇지만 나는 그 전갈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전갈이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고 내가 그를 구원하고 저 하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어요.”

■깊이생각하기: 기독교의 구원은 조건부 구원이다. 예수님을 받드시 나의 구주로 받아드리고 회개해야한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운 로마 군사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구원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한 사도바울도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눅 23:34).

■ 서로 나누기: 나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난하던 사람을 만나면 미소를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같이 잘 대해 준적이 있는가요? 내가 나를 해친 사람을 잘 대해줬다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나를 해친 사람을 따듯하게 포용해줬을 때 그의 태도를 본적이 있는가요? 그리고 후에 그가 나의 호의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

■ 기도

## 제 49 과 시기의 찬 독수리

■하나님의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앞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막 15:9-11).

### <예화>

드와이트 L. 무디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소개했다. 어느 독수리가 자기보다 더 잘 날아다니는 한 독수리를 늘 시기하였다. 어느 날 활과 화살을 든 사냥꾼을 보고 말하기를 “저기 저 높이 떠 있는 독수리를 땅으로 떨어트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냥꾼은 말하기를, “화살이 잘 나가려면 깃털이 필요한데 너의 깃털 하나를 뽑아 줄 수 있니?” 질투에 가득한 그 독수리는 기꺼이 자기 날개에서 깃털하나를 뽑아 주었다. 사냥꾼의 화살은 공중으로 날아갔지만 그 독수리는 너무나 높이 날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미치지 못했다. 시기심이 가지지 않은 독수리는 다른 깃털을 또 뽑아 사냥꾼에게 주었다. 사냥꾼은 계속하여 그 독수리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깃털이 더 많이 필요했다. 결국 그 독수리는 자기 깃털을 너무나 많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수 없게 되었다. 사냥꾼은 결국 날지 못하는 그 독수리를 잡아 죽였다. 무디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계속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그 시기심으로 인해 자기가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교훈하였다.

■깊이생각하기: 유대 군중은 유월절 때 죄수 한 사람이 석방되는 관습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시간까지 죄수는 바라바였다. 그러나 사태가 잘못 흐르면 예수를 풀어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높인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장로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인기가 하루아침에 예수에게로 몰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시기심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생긴다. 독수리의 시

기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 일수도 있지만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는 매우 큰 불행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서로 나누기: 나는 시기심(남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사람과 거리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때 그를 진심으로 반갑게 대했는가요? 나는 시기심이 발동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나는 시기심이 별로 안 생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도

## 제 50 과 살구 한 접시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예화>

육군에서 복무하는 한 젊은 심리학 학생이 이론을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부역에서 일하면서 살구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식당을 방문한 처음 몇 명의 군인들에게 “당신은 살구를 원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라고 물었다. 90 %는 “예”라고 답했다. 그런 다음 그는 긍정적 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당신은 살구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가 “네, 그래요. 좀 가져갈 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번에는 “살구 한 접시를 줄까요? 두 접시를 줄까요?” 군인들이 살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40 %는 두 접시를 달라고 했고 50 %는 한 접시를 달라고 했다.

■깊이생각하기: 씨앗 하나를 뿌리고 수백 배 수천 배를 거두는 자연의 원칙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이다. 기독교인의 선행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얻기 위해 그의 외아들인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의 외투는 주머니가 매우 크다 거기에다 넘치도록 주라는 의미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6:38). 하나님은 선행을 하는 사람의 손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서로 나누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요? 나는 선교지 주민들을 위한 선행에 동참해 본적이 있는가요? 나는 지역사회 안에서 선행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도 해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대로 나에게 이뤄진 적이 있는가요?.

■기도

## 제 51 과 독수리 동지

■하나님의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12).

<예화>

대개 사람들은 독수리의 동우리만 멀리서 볼 수 있지만 속을 보기는 힘들다. 동지를 높은 나무나 험악한 바위틈에 짓기 때문이다. 독수리 동지 구성은 처음에는 가시, 다음은 날카로운 가지들, 그 다음은 잘잘한 바위 조각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들의 부드러운 털로 깔아놓는다. 독수리새끼들은 어미가 물어온 먹이로 배불리면서 안일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성장하게 되면 동우리를 떠나 자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독수리 새끼들은 다 성숙했는데도 동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습관적으로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답답한 어미는 그들을 독립시키기 위해 동지의 부드러운 털을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거친 돌조각들을 들어낸다. 그래도 꼼작 안하면 뾰족한 가지들과 그 밑에 날카로운 가지들 까지 들어낸다. 이때는 새끼들도 도저히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없어서 동우리 가장자리로 옮겨 다니면서 안절부절못하다가 어미가 주둥이로 밀면 겁을 먹고 푸른 공중으로 떨어진다. 이때 새끼독수리는 겁을 먹은 채 살려고 날개를 핀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이렇게 푸른 허공을 시원하게 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함을 느낀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많은 신자들은 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것인 양 살아간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한번 엄청난 테스트를 받게 되면 어디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도 뜨겁게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려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우리를 깨우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자리를 파헤치고 가시까지 들어낸다.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것을 알고 더 큰 고통이 닥치기 전에 믿음을 일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야한다.

■ 깊이생각하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독수리가 자기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시었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이 표현되고 새끼들은 이스라엘로 표현된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공중에 던졌다가 날 세계 달려 내려가서 큰 날개로 받아주곤 한다. 독수리 어미가 둥우리를 파헤쳐 바닥이 날카롭게 들어나게 하면서까지 새끼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독수리 다운 새를 만들기 이해서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일해지면 우상으로 돌아갈까 봐 필요시 독수리 같은 훈련을 시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세계위에 우뚝 세우기 위함이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로 당겨 놓곤 한다. 그 시련이 오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이다.

■ 서로 나누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 새끼들처럼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현재 나의신앙은 독수리 새끼들처럼 안절부절하는 신앙인가요? 내가 믿음의 푸른 하늘을 나를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요?

■기도



## 제 52과 원수를 나의 친구로

■하나님의 말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5:43-46).

### <예화>

미국 혁명 당시 죠지 워싱턴과 친한 관계인 침례교 목사 Peter Miller 에 대한 이야기이다. 밀러는 미국 펜실바니아주 에프라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곳에는 피터 밀러를 반대하고 모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악의적 인 사람인 마이클 워트멘도 살았다. 어느 날 워트멘은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피터 밀러는 배신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도보로 70 마일이나 걸어서 필라델피아로 가서 죠지 워싱턴을 만나 배신자 워트멘을 살려 달라고 청원을 했다. “아니, 피터” 워싱턴 장군이 말했다. “나는 당신 친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소”. 이에 대해 침례교 목사는 “그는 내 친구야!” 침례교 목사인 밀러는 외쳤다. 워싱턴은 말하기를 “그는 나의 아주 쓰라린 적이야”. 밀러는, “뭐 라고?” 이에 워싱턴은 “당신은 그런 악한 적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70 마일을 걸어왔단 말이요?” 워싱턴은 할 수 없이 밀러목사의 청원을 받아 주었다. 밀러 목사는 자기를 비난하는 워트멘을 에프라타 집으로 데려가 자유 함을 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다.” 우리 크리스천 들 중에서 밀러 목사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많이 외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 깊이생각하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다. 밀려 목사처럼 희생을 보여주면 원수를 살리게 된다. 태양은 모든 수목에 골고루 비추기 때문에 가시나무도 자라고 맛있는 과일나무도 자란다. 태양은 참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 창조이래로 한 번도 태양이 사라지거나 하늘의 문을 닫아 본적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반드시 태양과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중단하지 않으신다.

■ 서로 나누기: 나는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기를 원한 적이 있었는가요?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온정을 베푼 적이 있는가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나는 이웃집아이들과 내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을 때 편애를 한 적이 있었는가요?

■ 기도

\*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